5.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The world falls in love

5. 디지털 시민시장실. 세계가 반하다

Hello, I'm Lee Jin-hyeong. With the city’s philosophy of ‘Citizens are the Mayor’, the Digital Citizens Mayor’s Office, the system that made citizens see Seoul at a glance at the level of the Mayor, is an example of how Seoul is the best connected digital city in the world.

안녕하세요. 이진형입니다. ‘시민이 시장'이라는 시정철학을 담아, 시민도 시장의 눈높이로 서울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서울시가 세계에서 가장 잘 연결돼 있는 디지털화한 도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례라 하겠습니다.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which has provided an opportunity for citizens to conveniently see information related to the City of Seoul by checking the same information as the Mayor in real time, has now begun to draw attention from the entire world.

시민도 시장과 동일한 정보를 실시간 확인함으로써 시민들은 서울시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편리하게 보고, 시는 정책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된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There is a reason why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a state-of-the-art system that digitalizes and covers 16 million points of administrative big data from more than 300 systems including Open Data Square and TOPIS, 2,800 points of CCTV video information and 120 Dasan Call in Seoul, is in the spotlight. This time, let's take a look at each country's reaction to the attractiveness of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and its value.

열린데이터광장을 비롯해 TOPIS 등 서울시 300여개 시스템의 행정 빅데이터 1,600만 건과 서울시내 2,800여 대 CCTV 영상정보, 120다산콜 등 민원창구데이터를 총 망라, 디지털화해 담아낸 최첨단 시스템인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세계적으로 각광 받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계가 반한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매력에 대한 각국의 반응과 그 가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that the world has paid attention to and fallen in love with

세계가 반한 디지털 시민시장실

First, let's look at the effects of combining Smart City Seoul with technology. In 2017, the Economist highlighted the city as a digital innovation city, describing the use of data as a key to solving problems in city life. And the city is constantly innovating with advanced technology to understand municipal administration and subway operations.

먼저, 스마트 시티 서울과 기술과의 만남을 통해 어떤 효과를 가지고 왔는지 살펴 보겠는데요. 지난 2017년 이코노미스트에서는 디지털 혁신도시로 서울시를 조명하면서 서울시에서는 데이터 이용이 도시생활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열쇠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첨단 기술로 시정과 지하철 운영을 파악하며 혁신을 거듭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In the US monthly IT magazine <Wired>, Harvard Professor Susan Crawford of the United States said “This board shows how safe the city is, how considerate it is for children, how eco-friendly it is, and how open the municipal administration is.”

미국의 월간 IT전문잡지 <와이어드(Wired)>에서 미국의 크로포드 교수는 “이 현황판은 도시가 얼마나 안전한가, 어린이들을 얼마나 배려하는가, 얼마나 친환경적인가, 시정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를 보여 준다”고 말했습니다.

In addition,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said that city leaders, businesses, and individuals are taking a new approach, where technology and imagination meet to create a new city and change the city by introducing technology.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민시장실은 도시 지도자와 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새로운 접근법을 취함으로써 기술과 상상이 만나 새로운 도시를 창조하고 기술력을 도입함으로써 도시를 뒤바꿔 놓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In addition, since the City of Seoul first announced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to the world, the number of overseas visitors to Seoul to explore Smart City has increased. Visitors are admiring the information power of Seoul,the safety of Seoul, and the coping ability of Seoul, and are looking for ways to apply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to their countries and cities.

그 외에도 서울시가 처음 세계에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알린 후부터 스마트 시티를 탐방하기 위해 서울시를 찾는 해외 인사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찾아온 손님들은 서울의 정보력을, 서울의 안전을, 서울의 대처 능력에 감탄하며 해당 국가나 도시에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So, what city visited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This is Tashkent, Uzbekistan. In 2017, it was the 25th anniversary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and it has been 11 years since Seoul and Tashkent began sister exchanges. With the visit of the Uzbek President, the partnership between Korea and Uzbekistan has become stronger.

그럼 이곳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찾아온 도시는 어디일까요? 바로 우즈베키스탄의 타슈켄트입니다. 지난 2017년 한국과 우즈베키스칸 수교 25주년이자 서울과 타슈켄트가 자매교류를 시작한지 11년을 맞은 해였습니다. 이에 맞춰 우즈베키스칸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동반자 관계가 더욱 단단해 졌는데요.

At this time, the City of Seoul decided to form the Seoul-Tashkent TF team to transfer its experience and know-how step by step and provide maximum support. In particular, Tashkent has put a lot of effort into implementing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including installing an ‘Information Screen’ in each district and establishing an infrastructure for video conferencing between the Mayor and district heads.

이때 서울시는 서울-타슈켄트 TF팀을 구성해서 단계적으로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최대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타슈켄트시는 디지털 시민시장실 구현을 위해 각 구마다 ‘인포메이션 스크린’을 설치하고 시장과 구청장간 화상회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And the second city is Chongqing, China. The city of Chongqing held the first Smart China Expo in 2018 to expand the national big data strategy, accelerate the construction of Internet powerhouse, data China, smart society, and cooperation in international exchanges and exchanges in the field of big data smartization. Chongqing has selected the City of Seoul as an excellent precedent for establishing a high-level exchange platform between global smart industry related organizations, businesses and experts, and has continued cooperation and exchanges.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충칭시입니다. 충칭시는 2018년 국가 빅데이터 전략의 확대 실시를 비롯해 인터넷 강국, 데이터 차이나, 스마트 사회의 건설 가속화, 빅데이터 스마트화 분야의 국제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제1회 스마트 차이나 엑스포’를 개최하였습니다. 충칭시는 글로벌 스마트 산업 관련 기구와 기업 그리고 전문가 간의 고차원적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우수 선례로 서울시를 선정하며,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City of Seoul that visits

찾아가는 서울시

The City of Seoul has participated in various events to promote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Examples include Third Meeting of OECD Champion Mayors for Inclusive Growth in 2017, the Annual Meeting of the African Development Bank (AfDB) in 2018, the OECD World Forum, CES2019 and CES2020.

서울시는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알리기 위해 여러 행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2017년 개최된 제3차 포용적 성장 OECD 챔피언 시장회의, 2018년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연차 총회, OECD 세계포럼, CES2019, CES2020 등이 있습니다.

In particular,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was introduced as a best policy case in the policy of the future environment, policy for solving global inequality, and policy in public data sector.

특히 디지털 시민시장실은미래 환경을 위한 정책, 세계 불평등 해결을 위한 정책, 공공데이터 부문에서의 정책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습니다.

There is a saying that you have to look back at the past to see the future. To picture a better future of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the first thing to do is look back on the past three years.

미래를 내다보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디지털 시민시장실의 더 나은 미래를 그려보려면, 지난 3년의 세월을 돌아보는 게 먼저일 것입니다.

Please remember that the Digital Citizen Mayor’s Office was created because the system took root as an interactive program by creatively designing and visualizing the data **:** through trial and error on policy maps, city statistics maps, and policy bands. Thank you.

정책지도, 도시통계지도, 정책밴드 등을 전신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데이터를 창의적으로 디자인하고 시각화하여 쌍방향 프로그램으로 시스템을 정착했기 때문에, 지금의 디지털 시민시장실이 탄생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